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학업 주기도문 작성 신앙운동		
동아리 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SFC
활동시간	2026.03.08 ~ 06.01.	비고	
활동목적	성경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보기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과 소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시작과 마침에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함으로써 기도의 올바른 방향과 내용을 되새길 수 있다. 또한 주기도문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암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구절의 의미를 묵상하며 마음을 담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한다. SFC의 중요한 활동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다. 대학생에게 학업은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 학문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를 실제 삶으로 이어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자 '학업 주기도문'을 작성하며, 학업에 임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과 다짐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본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학생회관 607호 동아리방 활동내용 : 위와 같은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SFC 운동원들이 함께하는 연합 모임인 경기U-SFC에서는 각 캠퍼스별로 학업 주기도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실제 주기도문의 구절을 한 절씩 선정하여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각 구절의 의미에 맞는 기도문을 개인의 전공과 상황에 따라 작성하였다. 각자가 작성한 기도문은 메모지에 적어 게시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예를 들어 주기도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을 묵상할 때에는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내용을 기도문으로 작성하였다.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운동원들은 자연의 섭리와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간구하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국제학을 전공하는 운동원은 혼란한 국제사회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다. 아직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운동원들은 공정한 경쟁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등의 내용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여섯 차례의 큰모임에서 학업 주기도문을 작성하였다. 학기 말에는 그동안 작성한 내용을 각자 취합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하나의 완성된 기도문으로 정리한 뒤,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기U-SFC 종강 큰모임에서도 몇 명의 운동원이 자신이 작성한 학업 주기도문을 직접 낭독하며 다른 캠퍼스의 운동원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소감 :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신앙과 일상의 삶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비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도 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앙과 실제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매주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는 신앙이 삶의 태도와 선택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성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신앙과 일상의 삶을 서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종교 활동에만 한정하고, 학업이나 진로, 인간관계와 같은 일상의 영역은 신앙과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신앙과 삶 사이의 간격이 생길 수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운동원들은 학업과 신앙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리스도인 학생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 단순히 높은 성적을 얻는 것을 학업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직함과
-----------------------------	--

성실함을 지키고 자신의 전공을 통하여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길 수 있었다.

지난해 진행한 커닝 추방 운동과 브라운 데이 운동이 보다 공정하고 깨끗하며 밝은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고민과 실천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었다면, 이번 학업 주기도문 작성 활동은 각자의 전공과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신앙과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해 보는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번 활동은 우리가 학생으로서 학업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자의 전공 분야와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활동이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June 1 at 1:08 AM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을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외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지만, 정작 현실에 놓였을 때 미래를 두려워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앞날의 모든 일들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전공은 천문학입니다. 나의 성과를 위해 나아가간다면 모든 연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천지창조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과학적 인과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학문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지적 호기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임을 알고, 연구가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이 되게 도와주세요. 직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 돈을 우선적인 가치로 고민하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에 놓였을 때 돈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우선된 가치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캠퍼스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팀플을 하거나 학과 생활을 하는 등 사람들과 관계 맺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는 노력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함을 알고 그 무엇보다 우선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June 1 at 9:29 AM

그 누구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전공인 환경공학을 통해, 사람들이 망가트린 환경을 회복하길 바라며, 이 과정에서 저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주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며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몸소 느끼길 바랍니다 저에게 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공부하는 중에도 저를 통해 일하셔서 제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저를 통해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선물인 환경을 가꾸시고, 그 과정에서 제가 세속적인 것들을 쫓는게 아닌,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공부를 시작한 이유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옵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불안정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그 미래를 설계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세상과는 다른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뜻과 나라보다 제 뜻과 세상의 것들을 우선시한 저를 용서해주시고, 앞으로는 매일매일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 모든 과정속에서 제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전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걸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June 1 at 12:04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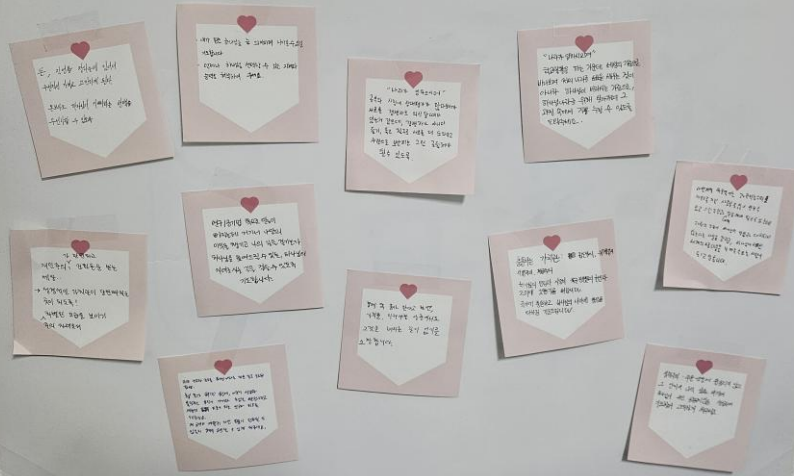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학업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공부가 단순히 성적을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과제와 시험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며 조금해하기보다 제게 주어진 속도와 걸음을 감사히 견게 하소서. 집중해야 할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지칠 때에는 다시 일어설 힘과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모르는 것을 마주할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이해와 성장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배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제가 배우는 지식이 교만이 되지 않고,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모든 배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시험의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다듬어지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책임감을 주세요. 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한 뒤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June 1 at 12:18 AM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학, 성적, 학점, 취업 같은 것들로 제 가치를 판단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세요. 제 전공과 학업, 앞으로의 진로가 단순히 좋은 직장이나 물질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이게 해 주세요. 지금은 제가 배우는 것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공부하게 해 주세요. 제 생각과 계획만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제 삶과 전공을 통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성공만을 바라보기보다, 제 자리에서 작은 변화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해 주세요. 지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주를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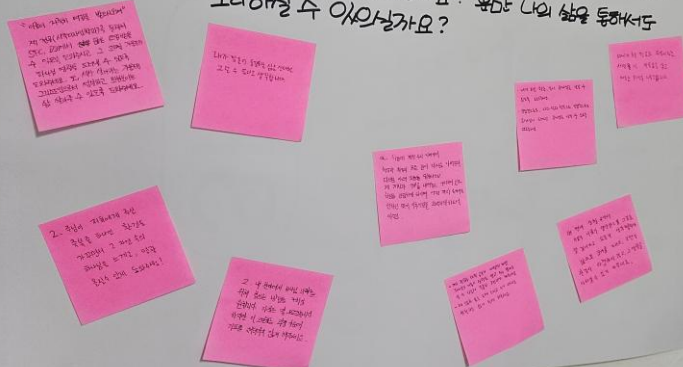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름이 그리워 여기로 받으시오며”

나의 영광(또는 과반)을 통해 어떻게 나의 이름이 아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복은 나의 삶에 통해서도

그리하실 수 있으실까요?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김민재



활 동 명	2026-1 정기 큰모임		
동아리 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SFC
활동시간	2026.03.09. / 03.16. / 03.23. / 03.30 / 04.06 / 04.27 / 05.04. / 05.11. / 05.18. / 05.25 총 9회	비고	매주 월요일 18:00 정기 모임
활동목적	정기적인 매주 큰 모임을 통해 말씀훈련 및 성경공부 등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성경 중심의 신앙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추구한다. 또한 삶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려운 부분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신앙공동체의 일원 으로서의 성장도 함께 추구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매주 월요일 동아리방에 모여 간단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SFC 강령과 학신가를 제창하며 모임을 시작하였다. 전체 모임 시간은 약 두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첫 한 시간은 함께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나머지 한 시간은 주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각자의 삶과 신앙적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교리 공부는 매 학기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지난 학기의 주제는 십계명이었으며, 이번 학기의 주제는 주기도문이었다. 주기도문은 매주 교회에서 암송하는 익숙한 기도문이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암송하기 쉬운 경우가 많다. 이에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차례로 되새기며 그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주기도문을 주제로 공부한 뒤 각자 학업 주기도문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SFC의 생활원리인 '하나님 중심'이라는 문구를 학업과 전공, 진로를 비롯한 실제 삶의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 찬양 인도: 문수혁, 김하람 운동원 • SFC 강령 및 학신가 인도: 김민재 회장 • 강의 및 메시지: 강자욱 간사 • 삶 나눔 및 기도 제목 나눔: 박예빈 부회장 정기 큰모임 시간에는 때때로 교리 공부 대신 벚꽃 구경과 호수공원 아웃팅 등 외부 친교 활동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운동원들이 일상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더욱 가까이		

알아 가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으로 중앙동아리로 승격한 이후 진행한 이번 학기 SFC 정기모임에는 두 가지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동아리에 가입한 신입 운동원이 증가하면서 보다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신입 운동원 중에는 외국 거주 경험을 가진 학생을 비롯하여 다양한 전공과 관심사,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다. 새로운 운동원들의 참여로 큰모임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관점의 나눔이 이루어졌으며, 서로의 기도 제목과 삶의 경험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함께 생각과 고민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규모가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낀 한 학기였다.

두 번째는 동아리방 정비였다. 동아리방을 처음 배정받았을 당시에는 검은색 벽지와 천장으로 인해 공간의 분위기가 다소 어둡고 칙칙하였다. 이에 운동원들이 함께 페인트칠 작업을 진행하여 동아리방을 보다 밝고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큰모임 시간에 많은 운동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의자와 큰 책상, 캐비닛 등의 가구를 마련하였으며, 여름철 활동을 대비하여 에어컨도 설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는 여러 운동원과 간사님의 수고가 있었다.

이전 학기까지는 다른 동아리의 동아리방을 빌리거나 외부 교회를 모임 장소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는 우리 동아리방에서 정기적으로 모임과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운동원들 모두가 이에 대해 만족과 감사함을 느꼈다. 안정적인 활동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정기모임을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며, 동아리방이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김민재

활 동 명	2026-1 알돌모임		
동아리 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SFC
활동시간	2026.04.01~ 06.07.	비고	a.k.a. 작은모임
활동목적	알돌 모임은 본 동아리의 활동 목적 중 하나인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말씀 훈련과 성경공부를 통하여 영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소규모 모임이다. 정기 큰모임은 동아리 전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식적인 활동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규모가 커질수록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고민을 충분히 살피고 깊이 있는 나눔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알돌 모임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신앙과 학교생활에 관한 고민을 보다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돌’이라는 명칭에서 ‘알’은 씨앗을, ‘돌’은 돌봄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생들과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신입 운동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신앙과 삶의 성장을 함께 돕겠다는 활동의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두 명의 알돌 조장을 중심으로 두 개의 조를 구성하여 모임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입 운동원들의 학교생활과 공동체 적응을 돕고, 말씀과 기도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것을 활동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동아리방 혹은 카페 등 다양 <u>활동내용</u>: 알돌 모임은 신입 운동원들의 공동체 적응과 신앙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신입 운동원들을 중심으로 두 개의 소규모 조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각 조는 정기적으로 모여 신앙과 학교생활에 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생활을 살피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기의 공통 교재로는 『기도하지 않는 당신에게』를 선정하였다. 매주 정해진 분량을 함께 읽고, 책에서 다루는 기도의 의미와 필요성을 각자의 삶과 연결하여 생각한 뒤 소감과 적용점을 나누는 방식으로 모임을 진행하였다. 정기 큰모임보다 자유로운 소규모 모임의 특성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은 학업, 진로, 인간관계, 신앙생활 등 자신의 삶에 관한 고민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모임 외에도 식사와 교류 활동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조원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새롭게 동아리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알돌 모임은 단순한 친교 활동에 그치지 않고, 독서와 신앙 나눔을 기반으로 구성원 개개인을 돌보며 신앙과 일상의 연결을 고민하는 소규모 멘토링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u>소감</u>: 이번 활동을 통하여 기도의 방법과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생각할 수 있었다.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하고 바른 간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도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에 구성원들이 공감하였다. 알돌 모임은 이번 학기에 새롭게 도입한 주요 활동이었다. 동아리 구성원이 증가하면서 큰모임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나, 동시에 구성원 개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진 점도 있었다. 알돌 모임은 이러한 변화를 보완하고, 소규모 관계 안에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듣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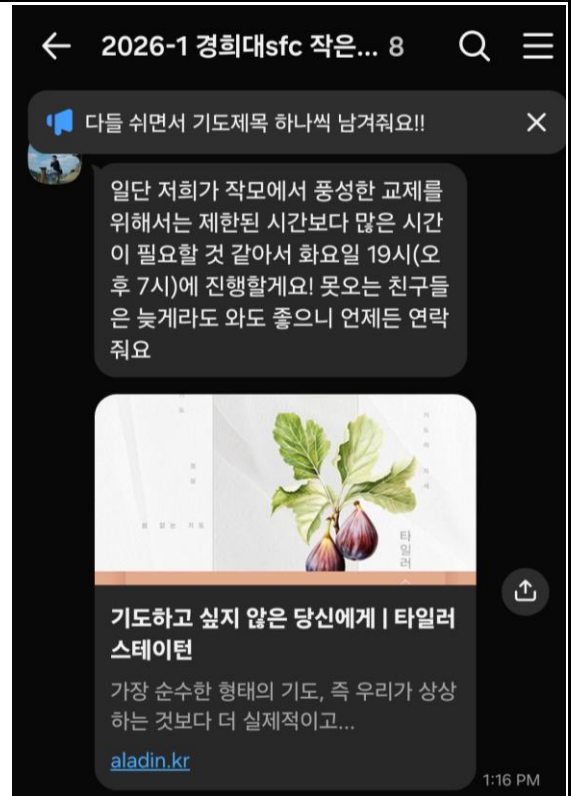
특히 재학생 운동원들은 자신들도 신입생 시기에 경험했던 학업, 진로, 인간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고민을 바탕으로 신입 운동원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나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신입 운동원들의 학교생활과 공동체 적응을 돕는 동시에, 재학생 운동원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책임과 섬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다.

개인 간의 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현대사회와 대학생활 속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서로의 삶과 신앙적 고민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본 활동은 의미가 있었다. 또한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신앙적 고민을 함께 나누며,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실천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다만 활동의 주된 대상이었던 신입 운동원들의 참여가 기대보다 낮았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 학기에는 신입 운동원들의 시간표와 참여 가능 시간을 사전에 조사하고, 모임 일정과 활동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활동의 목적과 진행 방식을 학기 초에 충분히 안내하여 신입 운동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김민재



활 동 명	모닥불 기도회 아침묵상 모임		
동아리 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SFC
활동시간	2026.03.19. ~ 06.04 (매주 목요일 진행)	비고	2026-1 정기 큰모임
활동목적	아침 모닥불 기도회는 본 동아리 회칙에 명시된 “말씀훈련 및 성경공부 등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성경 중심의 신앙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목적에 따라 진행된 정기 경건훈련 활동이다. 정기 큰모임이 동아리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의 방향을 공유하는 공식적인 모임이라면, 아침 모닥불 기도회는 수업과 일과가 시작되기 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데 초점을 둔 모임이다. 신앙을 특정한 행사나 정해진 모임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그날의 학업과 인간관계,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 가는 생활 훈련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의미가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수업, 과제, 시험과 여러 활동으로 일정이 불규칙해지기 쉬우며, 말씀 묵상과 기도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다. 이에 매주 목요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공동체가 함께 모임으로써,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닥불’이 작은 불씨들이 모여 하나의 불을 이루듯이, 각자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건 생활을 공동체가 함께 지속하고 서로의 신앙을 북돋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가 일회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돕고자 하였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학생회관 동아리방 607호 <u>활동내용</u>: 아침 모닥불 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수업이 시작되기 전 동아리방에서 진행하였다. 참여 운동원들은 SFC의 묵상 교재인 『날마다 주님과』를 활용하여 해당 날짜의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 뒤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먼저 함께 성경 본문을 읽고 각자가 특별히 마음에 남은 구절이나 생각을 정리하였다. 이후 본문의 내용을 단순히 해석하거나 지식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바로 그날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묵상 내용을 공유하였다. 수업에 임하는 태도, 시험과 과제를 대하는 자세, 인간관계에서의 말과 행동 등 구체적인 생활 영역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하였다. 묵상 나눔 이후에는 찬양을 통하여 마음을 모으고, 각자의 하루와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다. 개인적인 필요와 고민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도회를 마친 뒤 각자의 수업과 일상으로 흩어지더라도, 모임에서 묵상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본 활동은 별도의 행사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 같은 시간과 형식을 반복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를 일상의 리듬으로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여 운동원들은 매주 아침 함께 모인다는 약속을 통하여 개인의 경건생활을 꾸준히 이어 갈 수 있었고, 서로의 신앙생활을 격려하며 책임 있게 참여하였다. <u>소감</u>: 아침 모닥불 기도회의 가장 큰 의의는 말씀과 기도를 하루의 실제 출발점에 두었다는 데 있었다. 일반적으로 하루를 수업 준비나 휴대전화 확인, 당일 일정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하기 쉽지만, 기도회에 참여한 날에는 먼저 말씀 앞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그날의 삶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지를 돌아볼 수 있었다.
-----------------------------	---

특히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곧바로 수업과 학교생활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 모임에서 다룬 말씀을 먼 미래에 실천해야 할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날 마주하게 될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기억하고 행동하려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다. 또한 정기 큰 모임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개인의 경건생활과 일상의 영적 상태를 꾸준히 점검할 수 있었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신앙적인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같은 시간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반복을 통하여 신앙생활에는 꾸준함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경험하였다.

함께 모였다는 사실 자체도 개인의 경건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혼자 묵상할 때에는 피곤함이나 일정으로 인해 쉽게 미룰 수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들과 약속된 시간에 모임으로써 서로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개인의 신앙을 공동체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설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과정이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영적 성장은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며 배운 내용을 하루의 삶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침 모닥불 기도회는 이러한 지속적인 경건의 습관을 형성하고, 신앙과 대학생 생활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음 학기에는 참여 운동원들의 참여도와 참여 주체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모임에서 묵상한 말씀을 하루 동안 어떻게 기억하고 실천하였는지 간단히 돌아보는 과정을 추가하여, 아침의 묵상이 실제 생활의 변화로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지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3매 이상)



 16 나의 연약함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능력

한승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출애굽기 4장 1~17절

✚ 성경 본문

[illegible]

인간의 마지막 핑계와 하나님의 진노

30 모세가 아효와 아효의 오 주에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
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31 예호와께서 그에게 이르
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엮었느냐 누가 딸 못 듣는 자나 못 듣는 자
나 붙는 자나 행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아효와가 아니라 3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일하여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종보자 마련

14 조에게 이르되 오 주여 보낸 만민을 보내소서 14 여호사벳과
 모사를 함께 하여 노히아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벰 안온히 오지 아니
 하니 너가 할 말 할 것을 내가 아노라 그 너를 만민과 나로 나으니라
 그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 그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말을 그의 입에 펴겠고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한 것이라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는 그에게 한 번 감히
 되리라 17 이는 지파의 만민이 함께 이것으로 여호와를 행할지니라

140

 9
목요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즐거 아니 뵈어도' 출애굽기 1장 1-14절

✚ 묵상을 위한 기도 성령님께서 오늘도 영혼 목숨을 인도해 주사기를 기도합니다.

* 성경 본문

이스라엘 자손의 변성

1 아담과 하와가 각기 가족을 데리고 에덴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 루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3 잇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4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니 5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칠십이요 요셉은 예전에 있었더라 6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모르는 세 왕

요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일어나야 애매를 다스리라고? 그그 그 핵심에 이르러 이 핵심 이따금씩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10, 우리, 우리 자손에게 대해서 이따금씩 하사 하사 된다고? 그들이 더 많을지 나날의 일만 내내 우리 대과와 같을지 우리 부모와 같고 이따금씩 나날의 일만 내내 하고? 그중을 들을 그 위에 우리와 그 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풀게 하여 그들에게서 보람을 위하여 국고 돈과 보람과 라함같은 건국하게 하여 그들보다 더 많은 보람을 풍족 더 많이 보람이 커지게 하여 그들 사이 이따금씩 자손으로 더 많음이 근심하여 이따금씩 자손에게 일을 일하게 시켜 보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과 풀게하여 더 나은 풀기거기와 베풀 글기와 농사지을 것이 가질 일이다 그그는 일만 더 보람으로 일한다.

◆ 補給

[illegible]

128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김민재 (인)



활 동 명	경희대 기독교인 열린연합예배		
동아리 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SFC
활동시간	2026.3.31. / 2026.05.26. 2회	비고	캠퍼스 내 기독교 동아리 연합 예배
활동목적	기독교인 연합예배는 본 동아리 회칙에 명시된 "성경적 신앙 공동체로 성장한다"는 목적에 따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기독교 동아리와 기독교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며 신앙적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진행된 활동이다. 각 동아리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넘어, 같은 캠퍼스에서 신앙생활을 이어 가는 학생들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캠퍼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신앙적 책임을 돌아보고자 하였다.		
활동내용 및 소감	<u>장소</u>: 외국어 대학 소극장 <u>활동내용</u>: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기독교인 연합예배는 캠퍼스 안에서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하나로 모이는 귀한 시간이다. 학기의 시작과 끝마다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연속성과 유대감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서 기능한다. 이 예배는 경희대 SFC를 포함한 캠퍼스 내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의 여정을 나누는 공간이 된다. 특히 학기 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사와 소망을, 학기 말에는 한 학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된다. 이를 통해 캠퍼스의 기독교인들은 개별적인 신앙 생활 뿐만 아니라, 성경적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쌓고 있다. 또한 마지막에는 또한 각 동아리가 활동을 소개하고 주요 소식을 알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교내 기독교 동아리들이 서로의 활동을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었다. <u>소감</u>: 캠퍼스 안에 함께 울려 퍼진 찬양과 기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으며, 각 동아리의 활동 소개를 들으며 서로 어떠한 생각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신앙생활과 동아리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다른 기독교 동아리들은 세부적인 신앙의		

강조점이나 활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캠퍼스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고 나누고자 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공동체에 속한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캠퍼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으며, 교내 기독교인 공동체 간의 연대와 협력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김민재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김민재' (Kim Minjae), is written over a light blue rectangular background.

활 동 명	경기U - VaSA(Vacation SFC Academy)		
동아리 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SFC
활동시간	2026.02.26~02.27	비고	
활동목적	VaSA(Vacation SFC Academy)는 경기U-SFC 소속 운동원들이 방학 중 함께 모여 말씀과 강의를 통해 신앙을 점검하고, 배운 내용을 대학생활과 각 캠퍼스의 SFC 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합 교육 활동이다. 본 활동은 동아리 회칙에 명시된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한다"는 목적과 "성경 중심의 신앙훈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목적에 따라 참여하였다. 주제 강의와 경건회, 토의 및 나눔을 통해 개혁신앙의 내용과 운동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학생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개혁신앙이란 성경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앙을 교회 안에만 한정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신앙을 의미한다. 또한 경기U-SFC에 소속된 여러 캠퍼스의 운동원들과 교류하며 각 캠퍼스의 상황과 활동 경험을 나누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개별 캠퍼스의 범위를 넘어 경기U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고,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며 SFC 운동의 공통된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활동내용 및 소감	<u>장소</u>: 안양일심교회 <u>활동내용</u>: 2026년 겨울 VaSA는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안양 신일교회에서 '소망을 품고 본향을 향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경기U-SFC 소속 여러 대학의 운동원들이 참여하여 강의와 경건회, 토의 및 조별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에는 '소망을 품고 본향을 향해'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들으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과 삶의 방향을 생각하였다. 이어진 주력운동 토의에서는 SFC가 추구하는 운동의 목적과 이를 각 캠퍼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였다. 저녁에는 '하늘의 순례자'를 주제로 한 경건회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원투원 시간을 통해 다른 캠퍼스 운동원과 개인적인 신앙의 고민과 활동 경험을 나누었다. 둘째 날에는 기독교 세계관과 개혁주의·복음주의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통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개인의 회심과 신앙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의 의미를 살펴보는 한편, 개혁신앙은 복음을 바탕으로 학업과 진로, 문화와 사회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배웠다. 이후 조별 나눔을 통해 강의에서 이해한 내용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점을 공유하였다. 이어 '알돌, 사명자로 사는 리더'를 주제로 한 강의와 학원 대표자 모임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리더가 단순히 행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넘어,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섬기며 공동체의 방향을 함께 세워 가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였다. <u>소감</u>: 이번 VaSA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본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의 대학생들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다. 특히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복음에 대한 믿음이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업과 진로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다.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 삶을
-----------------------------	--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개혁신앙의 중요한 특징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기U-SFC의 여러 캠퍼스 운동원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토의와 조별 나눔에 참여한 것이 의미 있었다. 각 캠퍼스는 구성원의 규모와 활동 방식, 겪고 있는 어려움이 서로 달랐지만, 개혁신앙을 배우고 학교 안에서 실천하고자 한다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캠퍼스의 활동 사례와 고민을 들으며 우리 동아리의 활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었고, 경기U라는 더 넓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도 느낄 수 있었다.

알돌과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통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모임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섬기는 데 있다는 점을 배웠다. 이번 VaSA는 방학 중 신앙훈련을 이어 가는 동시에, 다른 캠퍼스 운동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SFC 운동의 목적과 운동원 으로서의 책임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Winter Vacation S.F.C. Academy
경기U-SFC
2026
겨울 VaSA**
〈소망을 품고 분향을 향해〉
장소: 안양신일교회
일시: 2월 26일 (목) ~ 2월 27일 (금)
입회비: 25,000원

	2/26 (목)	2/27 (금)	
13:00	입회	기상	9:00
14:00	오프닝	강의: <기독교 세계관>	10:00
14:40	강의: <소망을 품고 분향을 향해>	조별나눔	11:20
15:40	주력운동원의	점심식사	12:00
17:30	저녁식사	강의: <알돌, 사명자로 사는 리더>	13:00
19:00	경건회: <하늘의 순례자>	학원 대표자 모임	14:00
20:40	쉬는 시간		
20:50	원투원		
22:00	자유시간 및 취침		

**프로그램 소개
주제강의 & 경건회**

- 첫번째 강의** 주제: <소망을 품고 분향을 향해>
강사: 백승우 강사님
- 두번째 강의** 주제: <기독교 세계관>
강사: 한상훈 목사님
- 저녁 경건회** 주제: <하늘의 순례자>
강사: 안철영 간사님
- 학원 대표자 모임** 주제: <알돌, 사명자로 사는 리더>
강사: 안철영 간사님
*위원장, 위원, 알돌은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김민재

활 동 명	경기U - 새내기 어울마당		
동아리 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SFC
활동시간	2026.02.26~02.27	비고	
활동목적	위의 VaSA활동과 마찬가지로 경기U 단위에서 진행했던 행사인 새내기 어울마당은 경기U-SFC 소속 각 캠퍼스의 새내기 운동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SFC를 알아가고, 새로운 대학생활과 신앙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대학 입학 직후에는 학업과 인간 관계, 진로 등 여러 변화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만큼, 새내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먼저 다가가는 섬기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새내기들이 부담 없이 관계를 형성하고 신앙적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희대 SFC 내부의 친교를 넘어 경기U에 속한 다른 캠퍼스의 새내기 및 재학생 운동원들과 교류하며, 각 캠퍼스의 모습과 활동을 이해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새내기들이 자신이 속한 동아리뿐만 아니라 경기U-SFC라는 더 넓은 공동체를 경험하고, 앞으로의 SFC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활동내용 및 소감	<u>장소</u>: 용인 향상교회 <u>활동내용</u>: 새내기 어울마당은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 향상교회에서 진행되었으며, 경기U-SFC 소속 캠퍼스의 새내기와 재학생 운동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첫째 날에는 '지금 우리 학원은'이라는 순서를 통해 각 캠퍼스가 구성원과 활동 모습을 소개하였다. 행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장면을 되새기는 세족식을 진행하였다. 재학생 운동원과 새내기 운동원이 일대일로 짝을 이루었으며, 조명을 낮춘 차분한 분위기에서 재학생이 새내기의 발을 직접 씻겨 주었다. 이는 새롭게 공동체에 들어온 구성원을 낮은 자세로 환영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한 순서였다. 이어 새내기 SFC 강의를 들으며 SFC가 추구하는 신앙과 학생운동의 방향, 운동원으로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배웠다. 이후 어울마당 하이라이트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여 처음 만난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날에는 새내기와 2학년 운동원들이 함께 에버랜드로 이동하여 친교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식적인 강의나 모임에서 벗어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캠퍼스와 학년의 구분을 넘어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었으며, 새내기들이 재학생 운동원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에 친숙해지는 기회가 되었다. <u>소감</u>: 이번 활동을 통해 새내기 섬김은 단순히 동아리의 일정과 규칙을 안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공동체에 들어온 구성원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고 관계를 형성하는 일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새내기 친교를 위한 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은 참가자들의 긴장을 낮추고, 이후의 동아리 활동에서도 서로 편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서는 각 캠퍼스를 소개한 '지금 우리 학원은'이었다. 캠퍼스마다 구성원의
-----------------------------	---

수와 분위기, 활동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새내기를 섬기고 SFC 공동체를 세워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캠퍼스의 소개를 들으며 우리 동아리의 특징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고, 경희대 SFC가 경기U-SFC라는 더 큰 연결망 안에 속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새내기 SFC 강의와 재학생 운동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내기들이 SFC를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신앙과 대학생활을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어울마당은 새내기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 운동원들에게도 새내기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 있게 돌보고 섬겨야 할 책임을 되새기게 한 활동이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경기U - SFC
새내기 어울마당
용인 향성교회
2026년 3월 27(금) ~ 28일(토)

타임 테이블

3월 27일(금)	3월 28일(토)
19:00 ~ 저녁식사 및 입회	기상 및 정리 9:00 ~
20:30 ~ 오프닝	출발 10:00 ~
20:45 ~ 지금 우리 학원은	새내기들과 2학년 ~> 에버랜드
21:35 ~ 심동현 간사님 < 새내기 SFC 강의 >	
22:15 ~ 어울마당 하이라이트	
23:05 ~ 웃음꽃이 PG! 레크레이션	
23:45 ~ 광고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김민재



활 동 명	경기U - 2026-1 종강 큰모임		
동아리 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SFC
활동시간	2026.05.21.	비고	
활동목적	종강 큰모임은 경기U-SFC 소속 각 캠퍼스 운동원들이 한 학기의 신앙생활과 학원 활동을 함께 돌아보고, 종강과 방학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학기 중에는 각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캠퍼스 운동원들의 상황과 활동 과정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 종강 큰모임은 한 학기 동안의 경험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경기U-SFC라는 연합 공동체의 흐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성적과 과제 등 학업의 마무리에만 집중하기 쉬운 시기에, 한 학기를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신앙적으로 성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감사했던 일뿐 아니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활동과 개인적인 부족함도 돌아보며, 방학 이후의 신앙생활과 다음 학기 활동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활동내용 및 소감	<u>장소</u>: 광고 장로교회 <u>활동내용</u>: 2026년 5월 21일 광고장로교회에서 경기U-SFC 종강 큰모임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저녁 식사와 개회 순서를 가진 뒤, 안철영 간사의 '송영 주기도문' 강의를 듣고 함께 기도하였다. 강의를 통해 주기도문이 단순히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기도임을 살펴보았다. 이어 축복송과 캠퍼스별 광고를 통해 각 학원의 소식과 이후 일정을 공유하였다. 각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 듣고, 서로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간략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학기 동안 각 캠퍼스에서 작성해 온 학업 주기도문을 대표자들이 발표하였다. 경희대 SFC에서도 전공과 학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고민하며 작성한 기도문을 소개하였다. 경희대 운동원들은 이번 모임을 위해 별도로 특송을 연습하고, 당일 경기U 운동원들 앞에서 함		

께 찬양하였다. 단순히 행사에 참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준비 과정부터 하나의 순서를 맡아 참여함으로써 경희대 SFC의 구성원들이 서로 호흡을 맞추고 경기U 모임에 기여할 수 있었다.

소감: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른 캠퍼스 운동원들과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특히 학업 주기도문 발표에서는 같은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음에도 전공과 관심 분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고민과 간구가 담겨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를 통해 학업과 신앙의 연결은 하나의 정해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문제임을 생각할 수 있었다.

특송을 준비한 과정에서는 경희대 운동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두고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협력할 수 있었다. 짧은 순서였지만 우리 캠퍼스가 경기U 공동체 안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었다. 또한 다른 캠퍼스의 광고와 발표를 들으며 각 학원이 서로 다른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종강 큰모임은 한 학기를 단순히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활동을 정리하고 다음 시기를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바쁜 학기 말에도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른 운동원들과 한 학기의 수고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었다.

경기U - SFC

종강 큰모임

장소: 광고장로교회
일시: 5월 21일(목)

타임테이블

18:00~	입회 및 저녁식사
19:30~	오프닝
20:00~	감의 & 기도회
20:55~	축복송, 광고
21:05~	쉬는시간
21:15~	학업 주기도문 발표
22:00~	절리 및 해산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김민재



활 동 명	경기 U – BTOB(Back to Basic)		
동아리 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SFC
활동시간	2026.07.06.~07.10.	비고	
활동목적	BTOB(Back to Basic)는 경기U-SFC 운동원들이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잠시 벗어나 성경 읽기와 묵상, 공동체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건훈련이다. 학교생활 중에는 수업과 과제, 각종 일정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어, 긴 호흡으로 말씀을 읽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 어렵다. 이에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비교적 조용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해진 분량의 성경과 필독서를 꾸준히 읽는 훈련을 통해 말씀을 단편적으로 접하는 데서 벗어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여러 날 동안 함께 식사하고 생활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충분히 나누고, 평소에는 짧게 지나가기 쉬웠던 관계를 보다 깊게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취지였다.		
활동내용 및 소감	<u>장소</u>: 여주 금평교회 <u>활동내용</u>: 경기U 여름 경건훈련 BTOB는 2026년 7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 동안 여주 금평교회당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훈련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제출하고, 인터넷과 일상적인 미디어 사용에서 벗어나 성경 읽기와 묵상, 공동체 생활에 집중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신약성경 통독과 필독서 읽기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일정에 따라 신약성경을 읽으며 각 본문의 흐름과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변하는 세상, 영원한 복음』을 함께 읽으며 시대와 환경이 변하더라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였다. 읽은 내용을 혼자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마음에 남은 부분과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나누며 각자의 관점을 보완하였다.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참가자들끼리 직접 대화하거나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공동생활을 이어 갔다. 평소에는 휴대전화를 확인하느라 대화가 끊기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기		

쉬웠지만, BTOB에서는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정해진 프로그램 외의 시간에도 대학 생활과 진로, 신앙적 고민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경기U 운동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소감: BTOB에 참여하면서 평소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많은 시간과 집중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전자기기가 없는 생활이 다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의 자극 없이 성경과 책을 읽고 한 가지 생각에 오래 머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말씀을 짧게 읽고 바로 다른 일을 시작하던 평소의 방식과 달리, 성경의 흐름을 이어서 읽으면서 각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필독서를 읽는 과정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였다. 시대의 흐름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의 핵심을 붙들면서 현재의 문제와 언어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여러 날 동안 경기U 운동원들과 함께 생활한 것이 인상 깊었다. 짧은 공식 모임에서는 알기 어려웠던 서로의 생각과 생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대화를 충분히 이어 가면서 관계가 한층 가까워졌다. BTOB는 많은 프로그램을 빠르게 경험하는 행사가 아니라,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말씀과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만든 훈련이었다. 이를 통해 경건생활에는 특별한 감정이나 일회적인 결심만이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는 꾸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경기U 여름 경건훈련, 13T이3

Back TO Basic

BTOB가 뭐예요?



BTOB는 경기U-SFC의 경건훈련으로,
일주일 간 시골교회에서 머무르며
핸드폰, 인터넷, 일체의 전자기기 없이
성경 묵상과 경건생활에만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올해는 뭐해요?

도파민 디톡스를 위한 자연환경과 경건생활을 위한
박센 훈련 스케줄 대기 완료. 일주일 간의 공동체 생활과 아웃팅까지~!!

01
신약통독



02
필독서 읽기



변하는 세상,
영원한 복음(권수경)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김민재

활 동 명	2026 SFC 전국 여름 대학생대회 신앙수련회		
동아리 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SFC
활동시간	2026.06.30~07.04	비고	
활동목적	전국SFC 대학생대회는 전국 각 지역과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SFC 운동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며, 개혁신앙에 기초한 대학생 신앙운동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전국 단위의 수련회이다. 본 동아리 회칙에 명시된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고 성경적 신앙 공동체로 성장한다”는 목적에 따라, 평소의 캠퍼스 활동을 넘어 전국 SFC 공동체의 신앙과 운동을 폭넓게 경험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대학생대회는 1년에 한 차례 개최되는 SFC의 대표적인 대학생 행사로, 전국의 운동원들이 4박 5일 동안 함께 생활한다는 점에서 일회적인 강의나 친교 행사와 구별된다. 지역과 학교, 전공과 학년, 공동체의 규모가 서로 다른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대화함으로써, 각 캠퍼스의 활동이 고립된 개별 활동이 아니라 전국학생신앙운동이라는 더 큰 흐름에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53회 대학생대회는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사랑하자(Let Us Love)’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로 가치를 증명하려는 대학生の 현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핵심 방향이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개인적인 위로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캠퍼스와 사회의 이웃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점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활동내용 및 소감	<u>장소</u>: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u>활동내용</u>: 제53회 전국SFC 대학생대회는 전국 각 권역과 지부에서 모인 대학생 운동원들이 4박 5일간 함께 숙식하며 성경 강해, 개혁신앙 아카데미, 조별 모임, 저녁 경건회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와 오프닝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매일 아침 식사와 조별 모임, 오전 선택식 강의, 오후 활동, 저녁 경건회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에는 클로징 세리머니를 통해 전체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오전 선택식 강의는 성경 강해와 개혁신앙 아카데미로 구성되었다. 성경 강해에서는 에베소서, 산상수훈,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느헤미야, 아모스 등의 성경 본문을 예배와 교제, 성품과 생활, 복음과 전도, 제자 양육, 헌신과 섬김, 개혁과 도전이라는 주제와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성경을 단순한 지식으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본문이 현재의 신앙생활과 공동체 활동에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 생각하도록 구성된 강의였다. 개혁신앙 아카데미에서는 연애, 결혼, 공동체, 전도, 세상 섬김, 자기 자신 등 대학생들이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주제를 다루었다. 개혁신앙은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앙을 교회 안의 종교 활동으로 제한하지 않고 인간관계와 학업, 진로, 문화와 사회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려는 신앙이다. 아카데미를 통해 연애와 결혼처럼 개인적인 영역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대하는 태도까지 성경적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었다. 오후 활동 프로그램은 대회의 주제인 '우리 사랑하자'의 세 단어와 연결하여 진행되었다. 첫 번째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전국에서 온 운동원들이 공동체 활동과 놀이에 참여하였다. 처음 만난 학생들과 함께 움직이고 협력하면서 지역과 캠퍼스의 구분으로 생길 수 있는 어색함을 낮추고, 서로가 한 SFC 공동체에 속한 운동원임을 경험하였다. 두 번째 '사랑' 프로그램에서는 교회와 학원 연합 부스 등을 통해 전국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SFC 활동을 살펴보고, 다양한 공동체의 신앙적 고백과 활동을 접하였다. 캠퍼스마다 처한 상황
-----------------------------	---

과 주요 활동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필요를 발견하고 실제로 반응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다.

세 번째 '하자' 프로그램에서는 삶의 여러 영역과 해외 지부를 소개하는 부스를 체험하였다. 캠퍼스 안의 문제뿐 아니라 문화, 사회, 선교지와 세계의 다양한 현실을 접하며,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범위가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가까운 공동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배웠다. 각자가 공부하는 전공과 앞으로 나아갈 진로 역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이 될 수 있음을 고민하였다.

매일 진행된 저녁 경건회에서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대회의 주제를 더욱 깊이 묵상하였다. 특히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경건함을 증명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인간의 조건이나 성취보다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인 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신 은혜임을 되새겼다.

조별 모임에서는 강의와 경건회에서 들은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나누었다. 서로 다른 지역과 학교에서 온 조원들이 대학생활, 인간관계, 진로와 공동체에 관한 고민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는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 여러 날 동안 함께 식사하고 예배하며 활동하는 과정 자체도 전국의 운동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소감: 전국SFC 대학생대회는 한 학기 동안 경희대와 경기U 안에서 경험했던 SFC 활동을 전국적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한 자리였다. 지역마다 캠퍼스의 환경과 공동체 규모, 운영 방식은 달랐지만,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과 생활을 함께 개혁하고자 하는 공통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다른 지역 운동원들의 고민과 활동 사례를 들으며, 우리가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작은 모임과 실천도 전국적인 학생신앙운동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체감하였다.

4박 5일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예배와 강의, 조별 활동과 공동생활이 이어졌다는 점도 특별했다. 한두 시간의 행사에서는 강의를 듣고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쉽지만, 대학생대회에서는 들은 말씀을 여러 날 동안 반복하여 묵상하고 다른 운동원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사이의 식사와 이동, 숙소에서의 대화까지 공동체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앙은 강의 시간에 배우는 내용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함께 생활하는 태도 속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경험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의 '우리 사랑하자'라는 주제는 사랑을 막연히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감정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도왔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 주신 사랑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능력이나 성취,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한 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경쟁자나 평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진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개인의 마음속에만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함을 깨달았다. 공동체 안의 사랑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외된 구성원에게 먼저 다가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며, 때로는 자신의 시간과 편의를 양보하는 섬김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갈등이나 불편함을 피하는 것보다, 그 관계를 책임 있게 회복하려는 태도가 사랑의 중요한 모습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아가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받은 사랑은 캠퍼스와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공동체 내부의 친교로만 끝난다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SFC의 목적과도 연결되기 어렵다. 학업과 전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캠퍼스의 불

공정과 소외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주변의 약한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해외 지부와 삶의 영역을 다룬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책임이 가까운 캠퍼스에서부터 지역사회와 세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였다.

성경 강해와 개혁신앙 아카데미는 신앙과 일상을 연결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개혁신앙은 올바른 교리를 아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관계와 선택, 공동체와 사회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삶을 요구한다. 연애와 결혼, 자기 자신과 공동체, 전도와 세상 섬김 같은 주제들이 신앙과 분리된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중요한 삶의 영역임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대학생대회는 많은 사람이 모인 규모 있는 행사였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참가 인원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지 않았다. 전국의 운동원들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 고민한 뒤 다시 자신의 캠퍼스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경희대 SFC 역시 대회에서 받은 도전과 배움을 일회적인 감동으로 남기지 않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일과 캠퍼스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활동으로 이어 가야 함을 되새겼다.

대학생대회에서 배운 사랑은 거창한 구호보다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공동체의 필요에 먼저 반응하며, 자신의 전공과 일상 속에서 정직과 책임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번 활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가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고, 다시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SFC 운동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배우고 경험한 시간이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6/30(화)	7/1(수)	7/2(목)	7/3(금)
	아침 식사/조별 모임			
09:00	성경 강해		개혁신앙 아카데미	
12:00	점심 식사			
13:00	조별 모임			
13:30	입회			
15:00	오프닝 세레모니	우리 조별 활동 프로그램 (공동체 놀이)	사랑 학산별 활동 프로그램 (학산 부스/아일랜드)	하자 조별 활동 프로그램 (영역/세로지명 부스)
17:00	저녁 식사			
19:00	저녁 경건회			클로징 세레모니
23:00	취침			

선택식 강의

3~7과정에 따른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개혁신앙인의 삶을 다양하게 고민해 봅니다.

선임회 대표자에게 전송된 이벤티스(www.ivi) 링크를 통해 대회 첫날(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합니다.

활동 프로그램

함께 운동을 돌아보며, 공동체성을 되새깁니다.

저녁 경건회

성경 강해		개혁신앙 아카데미	
에베소서 [에베전 1교절]	김규태 목사 (서울시청로교회)	연애	손지혜 간사 (서울남부지부)
산상수훈 [산골고 성령]	박덕혜 간사 (전라지부)	결혼	강자욱 간사 (광기동부지부)
사도행전 [행전 1장]	정현철 간사 (신원사역부)	공동체	오은태 간사 (홍정동부지부)
디모데후서 [디후 2장]	김두한 간사 (한남사역부)	전도	문효성 간사 (광남사역부)
느헤미야 [느헤 1장]	서성욱 간사 (광복동부지부)	세상 설립	서우석 목사 (사랑이(美田)교회)
아 모 스 [계 12장]	이현준 간사 (서울남부지부)	자기 자신	이정규 목사 (서울교회)

수요일: '우리'	목요일: '사랑'	금요일: '하자'
마음을 여는 하나됨 전국의 운동원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며 어울립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어색함을 허물고, 한 공동체임을 몸소 느끼며 마음을 열어갑니다.	연합의 현장과 고백 교회/학원연합 부스를 돌며 전국의 운동을 알아봅니다. 또한 <우리 문화 우리 고백>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피어난 신앙의 고백을 기쁨으로 나눕니다.	세상을 향한 발걸음 부스를 통해 삶의 영역들과 해외지부를 직접 체험해봅니다. 우리 결의 고민부터 선교지까지 저마다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봅니다.



박창원 목사
(포항장로교회)



공경민 간사
(전국SFC대표간사)

복음학교 (초신자 프로그램)

복음학교는 세례받지 않은 운동원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입금(입회비)을 제외한 금액은 대회 속에서 지원합니다.

소문의 낙원이 여기 있어요! 삶에 지친 나그네, 신이 궁금한 구도자여! 교회를 다녀도 확신 없는 방황자여!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여기 있어요! 복음학교 프로그램은 저녁 경건회를 제외한 모든 시간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초대합니다

진짜 사랑을 찾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캠퍼스에서는 능력으로, 교회에서는 경건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어 사랑받는 현실에 우리는 지쳤습니다. 나 하나 사랑하기도 버거운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리를 내어주는 헌신과 섬김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우리가 겨우 귀여워 낸 사랑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참된 사랑을 발견하는 곳은 우리의 가치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한없는 은혜에 잠기게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므로, 삼위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번 대학생대회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다시 숨 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자

이제 그 사랑이 머리의 지식을 넘어, 이웃에게 나아가는 뜨거운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원천을 가지고 공동체 너머에 있는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에게까지 흘러보냅니다.

사랑하는 전국학생신앙운동 동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 봅시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사랑으로 세상을 놀라게 합시다. "우리가 사랑하자" 이 부르심에 뜨거운 마음으로 응답할 여러분을, 사랑의 온기로 가득할 제53회 전국SFC 대학생대회로 초대합니다.

임회 안내

- 선입회는 19만원, 당일 입회는 20만원입니다.
- 교역자 임회비(10만원)는 교회에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입회 안내

- 선입회 기간은 6월 1일(월) ~ 6월 10일(수)까지입니다.
- 입회 원서를 홈페이지(<http://SFC.or.kr>)에서 다운 받아 소속 단위(교회나 학원)로 작성하신 후, 지부/권역별 입회 담당자에게 보내 주세요.
- 속소는 소속 단위별(교회나 학원)로 배정됩니다.
- 선입금(5만원)을 입금해 주셔야 **선입회가 완료됩니다.** 입회 계획은 지부/권역별 입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대체 입회 / 환불 안내

- 대체 입회는 같은 소속 단위(교회나 학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 환불이 필요한 경우 준비비를 제외한 1만원이 대회 중에 환불 처리됩니다.

선택식 강의 신청 안내

- 선택식 강의는 이벤트스(Eventus) 사이트를 통해 신청순으로 신청합니다.
- 선입회 완료 후 각 소속단위(교회나 학원) 대표자에게 링크가 사진 전달됩니다.
- 대회 첫날(6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안내

- 핸드북은 '종이' 혹은 '모바일(PDF파일)'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사무 임회 시 선택하신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도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부/권역별 입회 담당자

SFC본부	02-596-8491	서울권역(장로)	010-3439-6988
대구권역장역	010-7546-3230	부산5개지부	010-2560-0607
경북동부지부	010-2696-8573	충청권역	010-6899-4684
경남대산지부	010-9437-0274	전라권역	010-7377-3454
경남창원지부	010-5825-7662	제주지부	010-7931-9981
경남김해지부	010-8886-0921	울산·울산남부지부	010-6629-9484
경남진주시부	010-9184-2034	경기동부·충부지부	010-7234-2443
경남사북지부	010-3123-0394	경기서부·북부·인천지부	010-6610-1225

STUDENT FOR CHRIST

제53회 전국SFC 대학생대회

우리 사랑하자

LET US LOVE

2026년 6월 30일(화)-7월 4일(토)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충남 아산시 배방읍)

박창원 목사 (포항장로교회)

공경민 간사 (전국SFC대표간사)

당일 입회 20만원/선입회 19만원
(선입회 기간 2026년 6월 1일~10일, 선입금 5만원)

전국학생신앙운동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김민재